

## 시간과 공간이 보내주는 손님

| 미하일 나이미 | 정근호 옮김 |

자신의 삶과 행동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로 다가오는 경험인 시간의 손님에 대해 '운명'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의식하는 삶에는 그 번덕스런 운명이 크게 작용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지나간 그대의 시간이 보내준 그 손님에게 항의해서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복수하려고 너무 오래 머물게 하지 말며, 너무 자주 찾아오도록 해서 그 손님이 우연히 만난 것으로 여기게 하지 말라.

그 손님의 행색이나 행동과 관계없이 모든 손님에게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대하라. 어쨌든 그들은 그대들의 채권자이기 때문이다. 밭상인 손님들에게는 특히 더 잘 대해주어야 그들이 감사하고 만족해서 떠날 것이고, 그들이 다시 그대를 찾아올 때에는 채권자가 아니라 벗으로 여기고 올 것이다.

찾아오는 모든 손님을 명예로운 손님으로 대하면 그대는 그 손님의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방문에 담긴 숨은 의도를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불행을 행운으로 받아들여라. 불행은 잘 이해하기만 하면 행운으로 곧 변환된다. 행운을 잘못 해석하면 곧바로 불행이 된다.

비록 그대의 변덕스러운 기억력이 온통 눈부신 구멍과 틈들로 뒤엎겨버린 가짜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탄생과 죽음, 심지어 그 시간과 장소와 방법마저 선택한 장본인이 바로 그대 자신이다.

현자인 체하는 자들은 인간이 자신의 탄생과 죽음 어디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작은 눈구멍으로 ‘시간’과 ‘공간’을 결눈질하는 게으른 자들은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해버린다. 사제들이여, 그 두 부류의 자만심과 속임수를 경계하라.

‘시간’과 ‘공간’에서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어떤 것에도 실수하지 않고, 어느 것도 그저 지나치지 않는 ‘전능한 신’의 의지에 의해 배열되기 때문이다.

빛방울들이 모여서 샘물을 이루고, 샘물들이 흘러 시내와 개울에서

만나고, 개울과 시내들이 모여서 더 큰 하천을 이루고, 그 하천들이 물을 실어 날라 바다에 닿는다. 그 바다들이 드넓은 대양에서 모두 모인다. 생명이 있든 없든 모든 만물이 그렇게 각자의 의지를 모아서 ‘전능한 신’의 의지를 향해 흘러 들어간다.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모든 것은 의지를 갖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듣거나 말하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바위마저도 분명히 자신의 의지를 갖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바위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지도,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 의지와 존재의식은 인간의 의지와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의 차이는 없다.

하루를 놓고 보았을 때 그대는 진정으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의식을 갖고 생활한다고 생각하는가? 전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수준일 것이다.

두뇌와 기억력, 감정과 생각을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는 그대가 하루의 삶의 대부분을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왜 그대는 바위가 바위 자신의 삶과 의지에 대해 무의식적이라고 말하는가?

그대가 자신의 삶과 행동에 대해 의식하지 않은 채 살고 행동한다면 그대는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능한 신의 의지’는 그대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창조물의 의식 없음까지 모두 인지하고 있다.

‘전능한 신의 의지’는 ‘시간’과 ‘공간’의 지점마다 늘 그렇듯이 자신을 재분배함에 있어서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이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의지로써 원했던 모든 것을 되돌려준다.

그러나 그것을 알 길이 없는 인간은 ‘전능한 신의 의지’가 품은 만물상자에서 자기들의 몫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 너무 자주 실망을 한

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며 그 원망을 변덕스러운 운명의 탓으로 돌린다.

사제들이여, 운명은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다. 운명이란 ‘전능한 신의 의지’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너무나 변덕스럽고, 잣대 없고, 그 과정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의지이다. 인간의 의지는 오늘은 동쪽으로, 내일은 서쪽으로 분주하게 내달린다. 여기서는 이것을 좋다고 말하고, 다른 곳에 가서는 그것을 나쁘다고 말한다. 지금이 이 사람을 친구로 삼았다가, 나중에는 그를 적으로 여기고 싸워댄다.

사제들이여, 그대의 의지는 변덕스럽지 않아야 한다. 그대가 만인, 만물과 맺는 관계는 그것들에 대한 그대의 의지, 그것들이 그대에게 갖는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알라.

내가 그대들에게 전에도 일렀듯이 지금도 이르노니, 그대가 호흡하는 것, 말하는 것, 바라는 것,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항상 유념하라.

그대의 의지는 그대의 모든 호흡, 모든 말, 모든 바람, 모든 생각과 행동에 깃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대 안에 숨겨진 모든 것은 항상 ‘전능한 신의 의지’에 대해 표현된다.

어떤 이에게는 고통이 되는 것을 그에게서 즐거움으로 바라지 말라. 그가 느끼는 고통보다 그대가 느끼는 즐거움이 그대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이 될 것이다.

어떤 사물에게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라지 말라.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악한 것을 바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과 만물에게 그들의 ‘사랑’을 바라라. 오직 ‘사랑’만이 그대의 암막을 거두고 ‘이해’만이 그대의 마음을 깨울 것이며, ‘전능한 신의 의지’라는 놀라운 신비로 그대의 의지를 인도하리라.

그대가 만물을 의식하게 되기 전까지 그대는 만물이 그대 안에 갖는

의지, 그대가 만물 안에 갖는 의지를 의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대가 만물에 대한 자신의 의지, 그대에 대한 만물의 의지를 의식하기 전까지 그대는 ‘전능한 신의 의지’가 가진 신비를 알지 못하리라.

‘전능한 신의 의지’가 지닌 신비를 알기 전까지 그것에 대항하는 의지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대가 그에 대항한 의지를 가지면 그대는 패배자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대는 모든 만남에서 상처를 받고 증오에 취해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복수를 추구하여 오래된 상처에 새로운 상처를 덧대고 증오의 잔이 흘러넘치게 될 뿐이다.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패배를 승리로 바꾸고자 한다면 ‘전능한 신의 의지’를 받아들여라. 그의 신비로운 만물상자로부터 그대에게 떨어지는 모든 것들을 주저하지 말고 받아 안아라. ‘전능한 신의 의지’ 안에서 감사함과 믿음으로 그대의 정당하고 마땅한 몫을 수용하라. 그것들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로 그것들을 끌어안아라.

그리고 그대가 자신의 의지 안에 숨은 길을 이해하게 되면, 그대는 ‘전능한 신의 의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것이 그대에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것에 분노한다면, 귀찮은 수수께끼로 남을 뿐이다.

‘이해’가 ‘전능한 신의 의지’를 그대의 의지를 모시는 하인으로 만들 때까지, 그대는 자신의 의지를 ‘전능한 신의 의지’를 모시는 하인으로 만들어라.

노아에게 나는 그렇게 가르쳤도다.

그대들에게 나는 그렇게 가르치노라.”(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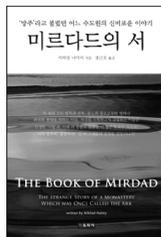
- 이 글은 『미르다드의 서 : 방주라고 불렀던 어느 수도원의 신비로운 이야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미하일 나이미** | 웅장한 산인Sannin 산의 높은 경사면에 위치하여 동부 지중해를 내려다보는 레바논의 중부 도시 바스킨타Baskinta의 그리스 정교 집안에 네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 가운데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러시아 선교사가 운영하던 마을 학교를 나와 팔레스타인의 나사렛에 있던 러시아 교사 연구소 부설 학교를 거쳐 우크라이나의 폴타바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했다. 그 뒤로 미국으로 건너가 1916년 워싱턴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1919년부터 집필활동을 시작했다. 초기의 작품들은 주로 문학비평이었고, 점차 시, 희곡, 소설 등 문학 장르 전체로 옮겨갔다. 같은 해 그는 뉴욕으로 건너가 당시 가장 가까이 지내던 친구이자 문학 동지인 칼릴 지브란과 함께 아랍문학 부흥운동을 시작했다. 함께 레바논 문학동인 모임을 이끌던 칼릴 지브란이 1931년 4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미하일 나이미는 20년간의 미국생활을 접고 고향인 바스킨타로 돌아와 평생을 집필활동과 은둔생활을 하다가 1988년 98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그가 집필한 31권의 작품들은 아랍문학계에서 고전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외국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역자 | **정근호** | 1959년 서울 출생. 독일에서 독문학과 종교음악을 전공했다. 이후 한국으로 귀국, 한동안 정착해 살다가 다시 독일로 떠났다. 독일에서 명상과 영적인 구도의 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95년 인도로 여행을 떠났다. 인도를 여행하던 중 다양한 명상체험을 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인도 신화에 심취하게 되었다. 현재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부탄을 오가며 산스크리트어와 인도 신화를 공부하고 있다.

## 미르다드의 서 방주라고 불렸던 어느 수도원의 신비로운 이야기

미하일 나이미 지음 | 정근호 옮김 | 출판사 젠토피아 | 정가 35,000원



신비로운 이방인 미르다드가 아주 멀리 떨어진 '방주'라는 수도원을 방문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야기의 결론은 미르다드의 방주가 곧 '신성한 이해'의 방주라는 것이며, 이 방주는 노아가 경험했던 대홍수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대홍수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여 이 땅에 천국을 구현하게 해 줄 것이다. 영성문학의 최고봉을 이루는 작품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미르다드의 서』는 기록과 대화의 형식으로 엮여 있으며, 사랑, 돈, 생명, 죽음, 회개, 늙음 등 우주적인 주제들에 대한 미르다드의 시공을 초월한 지혜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한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써 왔지만, 그들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나는 실패하지 않은 유일한 책 『미르다드의 서』를 알고 있다. 그대가 이 책의 정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작가의 실패가 아니라 그대 자신의 실패이다.”

— 오쇼Osho, 인도의 영적 스승

“미하일 나이미는 진화론적인 신비주의의 선구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나고 설득력 있는 인물이며 『미르다드의 서』는 진화론적 신비주의를 대표하는 역작들 가운데 하나이다. 작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신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인내와 무조건적인 연민의 무한한 힘이 주어진다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는 '그대들의 마음이 겁을 먹지 않도록 하라. 태양처럼 넓고 깊게 마음을 먹고, 그대에게 저주를 줄 뿐인 그에게 은총을 내려라. 그리고 이 지구의 대지처럼 인자하고 고요하게 유지하며, 인간들 마음속의 오물을 순수한 건강과 아름다움으로 바꾸어라. 그리고 하늘의 공기처럼 유연해져라. 그대에게 상처를 내려던 무기는 결국 녹슬고 무더질 것이다. 그대를 해치려던 팔뚝은 녹초가 되어 멈출 것이다. 그리고 '이해'가 그대에게 그날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말한다. 우리를 인도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바로 이 '이해' 안에 희망이 담겨 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신비롭고 예언적인 희망을 품으면서도 우리 자신을 불태우는 힘든 내적 작업에 착수하고 외적인 행동으로 지혜롭게 구현함으로써 자신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자들이 이 책 『미르다드의 서』를 읽고서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의 시련과 승리의 기쁨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바란다.”

— 앤드류 하비Andrew Harvey, 작가